

홍순무 화백 서양화초대전 개최

내달 3일 기린미술관서 인물화·풍경화·농악·누드·성화 5가지 장르 작품 전시

홍순무 화백이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열리지 않을 시연하게 장식한다. 재작년 봄에 기린미술관에서 23회 개인전인 홍순무 화백 회고전을 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기린미술관을 찾았다.

올해 87세인 홍 화백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화실에 출근하면서 '이곳에서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한 진중한 예술가이다. 홍 화백은 1935년에 생을 시작하였고 어려서 농촌 마을의 풍경과 농악의 정취를 알게 한 마음의 고향인 고창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로 유학하여 해화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앙중학교, 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회화과를 졸업했다.



홍순무 화백의 서양화초대전이 8월 3일 기린미술관에서 열린다.



홍 화백이 미술대학을 가게 된 것은 그 당시 중앙고교 교사였던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님이 "순무는 미대를 가라"는 조언 덕분이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서양화의 거두 박두순(1910-1990), 장욱진(1917-1990) 교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홍 화백에게 전북은 삶의 터전이자 예술의 고향이었다. 한 예술가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운 고향이 있고, 태산처럼 미더운 고향이 있고, 샘처럼 맑고 변함없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따라서 그는 삶의 터전인 전주에서 어머니의 품처럼 순수하고 개성적인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켰다.

그는 현대, 추상, 전위 등의 화려한 웃으로 주위 사람들이 바귀 입을 때 그는 고향산천과 이웃 사람들을 그렸다. 그리고 보아서 알고 싶어서 느끼는 삶의 진실만을 그렸다. 홍 화백의 삶의 현장의 이미지들 그리고 색채들이야말로 진정한 리얼리즘의 세계다.

홍순무 화백은 예술의 고향인 고향에서 두 번의 전시회를 갖고 50여점의 작품을 고창

향수를 불러 일으켜 서로 따뜻이 품어 안아서 미소짓게 하고 싶었습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들의 장르는 인물화, 풍경화, 농악, 누드, 성화와 같이 대체로 5가지이다.

한편, 홍순무 화백은 전주고등학교에서 5년간 봉직하다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개인전 25회를 개최했고,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목정문화상(1997), 국전 등에서 심사위원장을 했다. 특히 전라북도 예술인 공로상(1984), 전라북도 문화상(1985), 목정문화상(1997), 대통령 황조근정훈장(2000), 고창예술인상(2007), 가톨릭미술상 특별상(2012) 등 다양한 상들을 받은 고창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예술가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서 보낸 휴가 사진 포스팅 이벤트

전북문화관광재단, 8월 15일까지 여름휴가 이벤트 진행
전북관광 매력 널리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서 참여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북도 여름휴가 포스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휴가와 백신 접종 이후 증가할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는 올여름 다녀 온 전라북도에서 보낸 휴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후 안내에 따라 참여 인증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재단은 인증 절차를 거친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추첨을 통해 60명을 선정한다. 30명에게는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30명에게는 전북투어 패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스타그램(@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북도 여름휴가 포스팅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주사립미술관 청년작가 소장품展

전주문화재단, 8월 15일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실서 '확산 Diffusion'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8월 15일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실에서 2021년 전주사립미술관 청년작가 소장품展 '확산 Diffus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산 Diffusion'은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지역의 청년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다.

전시 주제인 '확산 Diffusion'은 전주시에 1종 사립미술관인 교동미술관, 누벨백미술관, 전주미술관에서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후원해 온 소장품을 소개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 전시로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이 대중에게 널리 소개되고,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해온 지역미술관이 재조명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확산되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교동미술관에 참여하는 김미라, 김관목, 김현진, 박진옥, 서완호, 유시라, 이광철, 이보영, 이주원, 임희성, 정소라 작가이고 누벨백미술관에서는 김경모, 김승현, 김하영, 박지예, 송지호, 양순실, 윤대라, 차유림, 전주미술관은 강승우, 이민지, 장사재, 최무용 작가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주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문화공간과 사람들과의 협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전주문화재단은 8월 15일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실에서 2021년 전주사립미술관 청년작가 소장품展 '확산 Diffusion'을 개최한다.

전주한벽문화관, '떠나요 힐링 산책' 30일 가족 뮤지컬 공연

'문화가 있는 날 - 떠나요, 힐링산책'의 네번째 여행이 오는 30일 오후 7시 전주한벽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보일 공연은 '(사)소리문화창작소 신'의 가족 뮤지컬 '떠나는 내 친구'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동화 속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익숙한 캐릭터들이 마녀와 함께 살아가며 가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 중심을 자극하고 세상 살아가는 진리에 대해 공감케 하는 유쾌한 뮤지컬이다.

'소리문화창작소 신'은 문화 소통을 통한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청립된 단체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폰 트렘가의 이야기', '김수로 강성진과 함께 떠나는 세계 뮤지컬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공연 예술 베테랑 단체다. 또한 매년 요양병원을 찾아가 소외된 어르신들과 보호자, 요양사를 위한 음악치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선보여 공연으로 사회가 소통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떠나요, 힐링산책'은 이번 공연을 제

외하고도 두 번의 공연산책이 더 남아 있다.

사업 담당자는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요즘, 공연을 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지만, 문화를 통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설방역과 대인 방역 모두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진행 될 남은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 '떠나는 내 친구'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의 및 사전예약은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